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Perceived Gains in Caregiv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 윤 성 은
교수 한 경 해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 Yoon, Sung-eun

Professor : Han, Gyoung-hae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gain in caregiving on the positive asp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ata were gathered from 262 informal caregivers who provided care for relatives or friends in need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verall level of perceived gain in caregiving was above the median level. Second, higher gains were perceived by the caregivers who were more educated and who had more remote relationships with care recipients. Third, perceived gain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fluencing caregiver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dition, when the perceived gain variable was added to the regression model, n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aregiver and the caregiving context were found to be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부양지원(caregiving), 부양지원 제공자(caregiver),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perceived gain in caregiving),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는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기능, 즉 비공식적인 부양체계로서의 기능이다(양옥경, 2000; Marks & Lambert, 1997). 최근 일련의 사회인구학적 변화가 한 개인에게는 생애과정 중에 부양자가 될 가능성¹⁾을 높임과 동시에 가족의 부양기능을 약화시키는 딜레마를 초래하면서, '가족부양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한경혜, 1998; Brody, 1981; Marks & Lambert, 1997).

가족부양의 영향, 특히 가족부양이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으며, 부양지원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되어왔다(Kramer, 1997). 그러나 최근에는 부양지원 제공자²⁾의 부양경험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진선, 2000; 양옥경, 2000; Farran, 1997; Kramer, 1997). 의존적인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된 경험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부양지원 경험에 잠재된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연구자들(Walker, Martin, & Jones, 1992)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존재이므로, 부양이 부담스럽기만 하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제한된 상황에서 왜 부양행동이 지속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생애과정적 역할 관점에 근거한 연구자들(Marks, 1998; Moen, Robinson, & Dempster-McClain, 1995)은 부양을 단순히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생애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구학적 추세로 볼 때 생애과정에서 성인기에 한번쯤은 거쳐야 하는 규범적 역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을 어려운 생활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며 성장·발전하는 존재로 가정하는 실존주의 관점에

서 부양경험을 재고한 Farran(1997)은, 가족원의 질병과 같은 어려운 생활사건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험은 부양지원 제공자에게 인간적 성숙과 의미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부양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양지원 경험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부정적 측면에 편중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표집상의 한계와 부양지원 개념의 제한적 정의와 관련이 있다. 부양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병원과 같은 기관을 통한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부양지원의 개념을 도구적 측면의 수발로 제한하고 부양지원 제공자 역시 이러한 협의의 수발을 제공하는 주 부양자(primary caregiver)로 한정하였다(Marks, 1996). 이렇게 부양의 다른 여러 측면들을 배제하는 접근은 주로 심각한 부양상황과 부양지원 제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양경험의 부정적 결과(outcome)를 과장시킬 수 있으며(Barer & Johnson, 1990; Horowitz, 1992), 부양지원을 제공하는 인구의 분포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한경혜, 윤성은, 2002). 따라서 최근에는 '부양' 행동을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윤정, 1999; Marks & Lambert, 1999).

선행연구들이 부양지원 경험 과정의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일반적

- 1) 한국 성인 남녀의 부양지원 제공 실태를 조사한 한경혜와 윤성은(200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6명 중 1명 정도(15.7%)가 지난 1년 동안 질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자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나 친자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성인기의 보편화된 경험임을 반영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부양지원'을 선행연구에서 '도구적 수발'로 국한된 '부양'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지원을 제공한 사람 역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부양자'라는 용어 대신 '부양지원 제공자'라는 용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으로 심리적 역기능 측정에 편중되어온 사회과학 연구 경향을 들 수 있다(Kramer, 1997). 그러나 심리적 기능 또는 심리적 복지에는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 함께 존재하며 이 두 차원은 독립적인 것으로, 같은 자극이 복지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Bradburn, 1969; Lawton, Moss, Kleban, Glicksman, & Rovine, 1991에서 재인용). 최근 서구에서는 부양 이슈에도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을 적용하여 부양경험의 다측면적인 결과를 검토하고, 부양경험의 보상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 '긍정적 차원의 복지결과'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부양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과정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부양지원의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부양지원 경험을 통해 지각한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부양지원 제공자들은 부양지원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심리적 보상을 얻는가?
둘째,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은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부양지원의 개념

서구의 실증 연구들은 보통 부양지원을 과업 중심적 지원(task-oriented service)으로 개념화하였다(김윤정, 1999; Nolan, Grant, & Keady, 1996). 즉 부양자 집단을 피부양자에게 1가지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ADL)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IADL)을 지원하며 주된 부양책임을 맡은 주 부양자로 정의하

여 측정해 왔으며(Levesque, Cossette, & Laurin, 1995; Marks & Lambert, 1997), 국내의 질환자 부양에 관한 연구들(이가옥·이미진, 2000)도 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주 부양자 역할은 보통 여성들이 맡는 반면, 남성들은 이차 부양자 역할을 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여성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피부양 대상도 노인에만 한정된 경향을 보였다(Horowitz, 1992; Marks & Lambert, 1997). 그러나 최근에는 도구적 과업 수행을 중심으로 부양지원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부양의 개념과 괴리가 있으며 부양의 다른 측면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부양지원을 제공하는 인구의 분포를 축소시키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Albert, 1991; Marks & Lambert, 1997).

부양지원 행동을 보다 넓은 의미로 보려는 시도로, Parker(1981; Nolan et al., 1996에서 재인용)는 부양지원을 도구적 의미의 수발과 정서적·물질적 차원에서의 배려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으며, Horowitz(1985)는 정서적 지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공적 지원체계와의 연계, 경제적 지원을 부양지원 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Marks와 Lambert(1997)는 정서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간병인 고용과 같은 관리자 역할(management role)도 중요한 부양지원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노인부양에 초점을 둔 국내의 연구들(김태현, 1981; 송효석, 1989; 이형실, 1992)도 부양지원을 대체로 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도구적 부양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양지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는 부양지원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일상적인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김윤정, 1999; Marks, 1996; Nolan et al., 1996)들은 부양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보다는 제공받은 도움에 대한 피부양자의 의존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양지원은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가족 및 친지에게 제공

하는 '비일상적 도움(nonordinary help)'으로 특별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혹은 확장된 의미의 사회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일상적 지원'과 구별되며, 지원의 내용은 정서적 지원에서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김윤정, 1999; Allen, Blieszner, & Roberto, 2000; Marks & Lambert, 1997).

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은 부양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부양부담과 반대되는 개념이다(Kramer, 1997). 문헌에 따라 '부양만족'(김윤정, 최혜경, 1993; Lawton et al., 1991), '비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보상'(Stephens, Franks, & Townsend, 1994; Walker et al., 1992), '의미발견'(Farran, 1997; Noonan & Tennstedt, 1997)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Nolan과 그의 동료들(1996)은 긍정적 부양경험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보상의 근원에 따라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은 첫째, 대인간의 관계역동에서 오는 보상으로, 피부양자의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서 오는 만족감, 피부양자 또는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 증진, 피부양자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 주변 사람들의 칭찬 등이 있다(김진선, 2000; Lawton et al., 1991; NAC & AARP, 1997). 둘째, 정신내적 차원에서 오는 보상으로, 부양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즉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 자체가 주는 보상으로, 선행 연구들(Noonan & Tennstedt, 1997; Pearlin, Mullan, Semple, & Skaff, 1990)에서 주로 '삶의 의미나 목적 부여'와 같이 부양지원 제공자의 실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적 성장을 가져오는 측면으로 규명되었다. 그밖에 성취감, 도전극복의 기회, 인내심과 같은 인격적 자질의 발달, 영적 성숙,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느낌 등이 있다(김진선, 2000; 이경순, 1996; 이숙현, 1999; Noonan & Tennstedt, 1997; Walker et

al., 1992).

특히 정신내적 차원에서 오는 보상은 개인의 성장·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양지원 제공자의 궁극적인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김진선, 2000; Nolan et al., 1996; Noonan & Tennstedt,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양지원 경험으로부터 얻는 보상 중 주로 정신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부양지원 제공자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이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신기영, 1999), 많은 부양연구들이 부양자의 부양지원 경험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Marks & Lambert, 1999).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양지원 경험이 부담이나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윤현숙, 차홍봉, 조양순, 2000; 이가옥, 이미진, 2000; George & Gwyther, 1986).

그러나 Bradburn(1969; Lawton et al., 1991에서 재인용)과 Ryff(1989) 등 일부 학자들은, 심리적 복지의 구조에는 긍정적 복지와 부정적 복지의 두 차원이 있으며 이 두 차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 개인은 동일 경험으로부터 복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이 염려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면서도 보람있는 경험일 수 있듯이 환자가족원에 대한 돌봄 경험 역시 고된 경험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Kramer, 1997).

실제로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차원을 포함한 Krause와 그의 동료들(Krause, Herzog, & Baker, 1992)의 실증연구에서, 부양지원 경험이 부양지원 제공자들의 통제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심리기능을 나타내는 다차원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양지원 제공자(caregiver)와 일반인(non-caregiver)의 심리적 복지감을 비교한 몇몇 연구들(Kling, Seltzer, & Ryff, 1997; Marks & Lambert, 1999)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에서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높은 복지

감을 보고하였다. 부양지원 경험에 잠재적인 보상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부양 스트레스 모델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심리기능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부양경험의 새로운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의 부양지원 제공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서미혜, 오가실, 1993; 윤현숙 외 2인, 2000)은 대부분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평가'의 측면과 '일반적인 복지'를 모두 부양지원 경험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서구에서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해 지각하는 부담이나 보상을 부양의 결과라기보다는 부양경험의 한 속성인 '부양지원 제공자 역할에 대한 인지과정'으로 간주하면서, 관심의 초점을 보다 일반적인 복지결과로 전환시키고 있다(George & Gwyther, 1986; Hoyert & Seltzer, 1992; Pearlin et al., 1990).

이러한 추세 가운데, Lawton과 그의 동료들(1991)은 인지과정을 강조하는 '부양자 적응과정 모델'³⁾과 Bradburn(1969; Lawton et al., 1991에서 재인용)의 '2차원 복지이론'을 토대로 부양과정의 '2요인 적응 모델'(two-factor adaptational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긍정적·부정적 복지차원에 기여하는 인지과정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인지과정은 부정적 복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인지과정은 긍정적 복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배우자와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양부담 및 부양보상과 긍정적·부정적 복지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 연구 결과, 강도 높은 부양지원을 제공하는 부양자일수록 부양부담과 부양보상을 모두 높게 지각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부양부담이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배우자를 부양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부양보상이 긍정적 정서상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wton은 부양자들이 더 많은 양의 부양지원을 제

공할수록 보상도 높게 지각하는 결과를 놓고,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부모에 대한 의무감 이행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느끼는 보상감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Kramer(1997)는 Lawton과 동료들의 2요인 적응 모델에 스트레스 이론, 사회교환 이론, 역할 이론, 실존주의 관점을 통합하여, 긍정적 과정을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의 '부양자 적응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크게 3단계로, 부양자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및 맥락',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중재과정', 그리고 부양지원 경험의 '결과'로 구분된다. 배경 및 맥락은 주로 피부양자의 특성과 부양지원 제공자의 특성을 나타내며, '중재과정'은 부양지원 제공자 역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로 보상(gain)과 부담 또는 긴장(strain)으로 개념화된다. 그리고 이 두 평가 차원은 긍정적·부정적 복지 결과에 나란히 연결된다. Kramer(1997)는 특히 부양경험의 보상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복지결과의 긍정적 차원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양지원 제공자의 긍정적 적응과정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Noonan과 Tennstedt(1997)는 부양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양지원 제공자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많은 변량을 설명할 것으로 보고, 부양지원 제공자가 부양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자존감, 통제감 등의 긍정적 복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부양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과정 모델이 적용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지각과

3) 기존의 가족부양 연구들은 부양지원 경험을 주로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한 '부양자 적응 과정 모델'을 통해 설명하였다. 부양자 적응과정 모델에서, 부양상황은 스트레스원(stressor)이며 부양연구에서 많이 다뤄온 부양부담은 부양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복지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최근 부양자 적응과정 모델이 정교화되면서,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평가 요소에 '상황에 대한 수용', '긍정적인 재평가'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심리적 복지결과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Pearlin et al., 1990; Lawton et al., 1991)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적 복지결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5.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및 맥락

부양자 적응과정 모델에 따르면, 부양지원 제공자의 배경 및 맥락이 보상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복지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Kramer, 1997).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양지원의 개념을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부양지원 제공 경험 자체의 속성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양지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부양상황, 즉 부양지원 제공자의 배경과 맥락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부양지원 제공자의 배경과 맥락은 주로 부양지원 제공자 자신과 피부양자의 특성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부양지원 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양상황 특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양지원 제공자의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지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양지원 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양상황 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에 부양지원 제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포함하였고 부양상황 변수에는 취업 여부, 피부양자와의 관계, 부양지원 유형, 부양기간을 포함하였다.

1) 부양지원 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양지원 경험은 남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자 역할 수행에 적합하게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보상지각도 더 높을 것으로 설명된다(Nolan et al, 1996). 실증연구에서는 여성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더 높은 보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Noonan & Tennstedt, 1997)도 있고, 남성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더 높은 보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Nolan et al, 1996)도 있어 비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남성 부양지원 제공자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Levesque et al, 1995)가 있는 반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Marks, 1994)도 있다.

연령과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다중역할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부양자 역할이 비교적 규범적 전이의 성격을 갖게되기 때문에, 중년초기보다 중년후기의 부양경험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Moen et al, 1995). 그러나 일부 실증연구들(Noonan & Tennstedt, 1997; Walker et al, 1992)에서는 부양지원 제공자의 연령과 부양지원경험에 대한 보상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부양지원 제공자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적응과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Moen et al, 1995). 실증연구(Reidel, Fredman, & Langenberg, 1998)에서도 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높은 보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교육수준과 함께 부양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자원으로 제시된다(윤현숙 외 2인, 2000; 이은희, 1999; Penning, 1998). 소득수준과 부양지원 제공자의 긍정적 적응과정의 직접적 관계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의 긍정적인 심리적 복지를 탐색한 Ryff(1989)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모든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심리적 복지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제시되었다.

2) 부양상황 특성

직업역할과 부양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할 긴장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복지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져왔다(윤현숙 외 2인, 2000; Brody, 1981).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직업이 있는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직업이 없는 부양지원 제공자들보다 부양부담이 낮고(이은희, 1999) 높은 보상을 지각하며(Reid & Hardy, 1999), 긍정적인 복지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oen et. al,

1995; Scharlach, 1994).

부양지원 제공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는 부양지원 경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어왔다. 실증적으로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집단이 부모를 부양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보상을 지각하고(Nolan et al, 1996; Riedel et al, 1998), 더 높은 긍정적 복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Hoyert & Seltzer, 1992)가 있는가 하면, 피부양자와의 관계유형에 따른 보상지각과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Noonan & Tennstedt, 1997)도 있다.

부양지원 유형과 부양경험 과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주 부양자의 도구적 수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부양지원 유형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간과되어 왔다. 부양지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연구자들(Marks & Lambert, 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부양지원 경험의 결과를 부양지원의 유형에 따라 탐색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부양지원의 양이나 강도가 부양경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Lawton과 동료들의 연구(1991)에서는 부양지원의 양이 많은 부양자일수록 부담과 보상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C와 AARP(1997)의 연구에서도 부양지원 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부양지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부양지원의 양에 따른 보상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Reidel et al, 1998)도 보고되고 있는 등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양지원 유형에 따라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지각과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양기간에 대해서는, 부양기간이 길수록 부양지원 제공자의 자원이 고갈되고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소모 가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양지원 제공자가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적응력이 유지되거나 향상된다고 보는 '적응 가설'이 있다(김윤정, 최혜경, 1993; Hoyert & Seltzer, 1992).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부양기간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

다. 부양기간이 부양지원 제공자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보상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Walker et al, 1992)가 있는 반면, 부양기간이 길수록 부양지원 제공자의 보상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윤정, 최혜경, 1993)도 있다. 또한 부양기간과 심리적 결과 사이에 곡선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Moen et al, 1995)도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 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한경혜, 이정화, Ryff, Marks, 2002)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한 1667명의 표본 중, 부양지원 제공 경험이 있는 응답자 262명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전국의 시도별, 성별,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분포의 비율에 맞추어 할당된 지역에서 성별·연령 비율에 맞추어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자료는 조사전문기관의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는 '개별 대면 면접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 2001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이었다.

부양지원 제공 경험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라는 문항(Marks, 199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⁴⁾. 그리고 구체적인 부

4) Marks(1996)는 이러한 측정방식이 개방적이지만(open-ended),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비일상적 도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피부양자의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부양지원 여부를 판별하는데 명확한 조작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자료 중 피부양자의 질병 및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률과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질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피부양자의 질병 및 장애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경혜와 윤성은(2002)의 논문을 참고할 것).

양지원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제공하는 도움의 내용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으로 나누어 체크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용돈, 병원비에 대하여 도움을 준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피부양자의 의논상대나 말상대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구적 지원은 피부양자에 대한 신체적인 수발로 피부양자에게 집안일, 심부름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은 Pearlin과 그의 동료들(1990)이 개발한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개인적 보상(Personal Gain) 척도를 토대로 하고, 선행연구들(김진선, 2000; 이경순, 1996; Nolan et al., 1996; Noonan & Tennstedt, 1997)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Pearlin과 그의 동료들(1990)의 척도에서 사용된 인간적 성장, 내적 능력의 강화, 새로운 기술 및 경험의 습득과 관련된 4문항에 '인생의 목적 및 의미 발견', '의무 이행에서 오는 자기 성취감', '인내심의 증가', '대인관계의 강화'와 관련된 5문항을 추가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심리적 복지감은 '미국의 중년기 발달에 관한 연구'(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에서 사용한 '긍정적 정서상태(positive affect)'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최근 한달 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평가를 나타내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다.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양지원 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과 부양상황 특성(취업 여부, 피부양자와의 관계, 부양지원 유형, 부양기간)에 따라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지각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상황 특성 (N=262)

변수	집단	빈도(%)
성별	남자	121(46.2)
	여자	141(55.8)
연령	30대	99(37.8)
	40대	93(35.5)
	50대	70(26.7)
	평균	42.68세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19.8)
	고졸	119(45.4)
	대졸 이상	91(34.7)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1(9.1)
	100-200만원 미만	62(26.7)
	200-300만원 미만	68(29.3)
	300-400만원 미만	46(19.8)
	400만원 이상	35(15.1)
평균	290,29만원	
취업 여부	취업	194(74.0)
	비취업	68(26.0)
피부양자와의 관계	본인부모	100(38.5)
	배우자부모	53(20.4)
	배우자	39(15.0)
	자녀	13(5.0)
	형제자매	31(11.9)
	다른친척 기타이웃	21(8.1) 3(1.2)
부양지원 유형	경제적 지원	109(42.6)
	정서적 지원	34(13.3)
	도구적 지원	21(8.2)
	경제+정서	56(21.9)
	경제+도구	15(5.9)
정서+도구	21(8.2)	
부양기간	1년 미만	98(37.4)
	1-5년 미만	79(30.2)
	5년 이상	85(32.4)
	평균	3.20년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간 사례 수는 다를 수 있음.

※ 부양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경혜와 윤성은(2002)의 논문을 참고할 것.

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의 전반적 경향

1)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표 2), 평균점수가 31.29점으로 중간값인 2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의 점수 평균도 모두 중간값인 3 점보다 높게 나타나,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대체로 부양지원 경험에 대해 지각하는 보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질환이 있는 노인의 부양지원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부양경험에 대한 평가를 탐색한 양옥경(2000)의 연구에서도 부양만족이라는 긍정적 평가 영역의 점수가 부정적 평가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경험에 보상적 측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측면이 부양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되었다'

(M=3.76), '인내심이 더 많아졌다'(M=3.69), '인간적으로 성장했다'(M=3.57)라는 문항들의 평균이 대체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 발견, 인간적 성장과 같이 실존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것이라는 일부 연구자들(Farran, 1997; Kramer, 1997; Nolan et al., 1996)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또한 '내가 할 일을 해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M=3.59)라는 문항의 평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김진선(2000)과 Scharlach(1994)의 연구에서도 가족부양자들을 대상으로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질문한 결과, '의무이행에서 오는 자기성취감 또는 자기만족감'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상황 특성에 따른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상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3), 교육수준과 피부양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지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 성별, 연령, 가계소득, 취업여부, 부양지원 유형, 부양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을 살펴보

<표 2>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부양지원경험에 대한 보상의 전반적 경향

(N=262)

보상의 내용	평균(표준편차)	척도점수범위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되었다.	3.76(.79)	1-5
인내심이 더 많아졌다.	3.69(.88)	1-5
내가 할 일을 해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3.59(.87)	1-5
인간적으로 성장했다.	3.57(.84)	1-5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다.	3.49(.87)	1-5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배웠다.	3.42(.89)	1-5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다.	3.36(.93)	1-5
나의 잠재력을 더 느끼게 되었다.	3.25(.93)	1-5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3.18(1.00)	1-5
전체 보상	31.29(5.81)	9-45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간 사례 수는 다를 수 있음.

〈표 3〉 부양지원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상황 특성에 따른 보상지각의 차이

변 수	집 단	평균	t값/ F값	Duncan
성별	남자	31.61	.81	
	여자	31.01		
연령	30대	31.58	.22	
	40대	31.19		
	50대	31.00		
교육수준	대졸 이상 고졸 이하	33.05 30.37	-3.56***	
가계소득	300만원 이상	31.85	1.65	
	150-300만원 미만	30.41		
	150만원 미만	31.79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31.45 30.82	.76	
피부양자와의 관계	배우자·자녀	30.31	2.44†	a
	본인부모·배우자부모	31.24		ab
	다른 친척·이웃	33.19		b
부양지원 유형	도구적 지원(도구, 경제+도구, 정서+도구) 기타지원(경제, 정서, 경제+정서)	31.43 31.23	.54	
부양기간	1년 미만	31.72	.76	
	1-5년 미만	30.64		
	5년 이상	31.40		

†p<.10 *** p<.001

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선행연구(Reidel et al., 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부양지원 제공자의 교육수준이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평가 과정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Moen et al., 1995).

피부양자와의 관계에 따른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을 살펴보면, 선행연구 결과(Noonan & Tennstedt, 1997)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집단과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집단간의 보상지각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집단에 비해 다른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집단이 더 높은 보상을 지각하였다. 이것은 피부양대상을 다른 친척이나 이웃까지 확대함으로써 나타난 새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3.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부양지원 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양상황 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 집단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1단계의 회귀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부양상황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여기에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변수를 추가하여 2단계의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부양상황 특성 변수를 투입한 1단계 회귀식 결과, 교육수준 변수($\beta=.20$, $p<.05$), 피부양자와의 관계 변수($\beta=.16$, $p<.10$)의 순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양지원 제공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보다는 다른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하는 집단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 회귀식에서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변수를 추가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했던 피부양자와의 관계 변수의 설명력이 사라졌으며, 교육수준 변수의 설명력($\beta=.18, p<.05$)이 감소하였다. 1단계의 회귀식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양상황 특성의 설명력은 10%였고,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변수를 추가한 2단계의 회귀식에서는 설명력이 16%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부양지원 제공자의 배경과 맥락의 영향을 중재하는 과정이라는 Kramer(1997)의 주장과 일치한다.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서($\beta=.25, p<.001$)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및 맥락 변수들 중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인 교육수준($\beta=.18, p<.05$)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쳤다.

부양지원 제공자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beta=.25,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수준($\beta=.18, p<.05$)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양상황 특성 변수들, 즉 취업 여부, 피부양자와의 관계, 부양지원 유형, 부양기간 중 어느 것도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부양지원 경험의 결과에 있어서,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부양지원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며(Kramer, 1997; Lawton et al, 1991; Pearlin et al, 1990), 특히 보상지각과 같은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양지원 제공자들의

<표 4>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복지감			
	1단계		2단계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a	.87	.10	.73	.08
연령	-.01	-.02	.00	.01
교육수준	.25	.20*	.23	.18*
가계소득	.00	-.03	.00	-.02
부양상황 특성				
취업 여부 ^b	.07	.01	.10	.01
본인부모·배우자부모 부양 ^c	.96	.11	1.17	.13
다른 친척·이웃 부양 ^d	1.95	.16†	1.61	.13
부양지원 유형 ^e	-.30	-.03	-.56	-.06
부양기간	-.06	-.07	-.08	-.09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				
상수항	14.78		8.68	
F값	2.26*		3.43***	
R ²	.10		.16	

†p<.10 * p<.05 ** p<.01 *** p<.001

^a여자 0, 남자 1 ^b비취업 0, 취업 1 ^c배우자·자녀 부양 0, 본인부모·배우자부모 부양 1 ^d배우자·자녀 부양 0, 다른 친척·이웃 부양 1 ^e기타 지원(경제, 정서, 경제+정서) 0, 도구적 지원(도구, 경제+도구, 정서+도구) 1로 가변수 처리함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Noonan & Tennstedt, 1997)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 및 친지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지각이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 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첫째,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지각하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값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양지원 경험에 보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 및 의미 발견', '인내심의 증가', '의무 이행에서 오는 자기성취감', '인간적 성장'을 묻는 문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존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보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한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Farran, 1997; Nolan et al., 1996).

둘째, 교육수준이 높은 부양지원 제공자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것은 부양지원 제공자의 교육수준이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평가과정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부양지원 제공자와의 관계가 먼 피부양자(다른 친척 및 이웃)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집단이 관계가 가까운 피부양자(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양지원을 제공한 집단보다 보상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양자와의 관계가 멀수록 자발적 동기에서 부양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부양에 대한 역할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상황 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을 중재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쳤다. Ryff(198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일반 성인의 긍정적 심리기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된 바 있지만, 부양상황에서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보상지각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트레스 모델에서 부양자의 부정적 복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부양상황 특성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어떠한 부양상황에 있는가보다는 부양경험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가 부양경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ramer, 1997), 특히 보상지각과 같은 긍정적 평가가 부양지원 제공자의 심리적 복지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Noonan & Tennstedt, 1997).

부양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양의 부담과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부양경험에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제시해온 부정적 결과 이외의 다른 측면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관점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부양지원 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개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주된 정책 방향이었던 '부양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부양보상의 강화'에도 함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Clarke(1995; Nolan et al., 1996에서 재인용)는, 부양지원 제공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부양지원 제공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통해 개입하려는 전문가들의 병리적 관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 영역의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서비스 지원보다는 부양지원 제공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 영역에서도 어떠한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위기상황(risk)에 있으며, 어떠한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잘 적응하고 성장

하는지를 규명하여, 부양지원 제공자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양지원 제공자들의 부양 강도와 피부양자와의 동거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얼마나 과중한 역할부담을 안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부양지원 경험 과정을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양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을 개인내적 차원에 한정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절적접근 등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부양지원 제공자가 지각하는 보상의 구조를 규명하고, 다양한 측면의 보상과 그에 따른 결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만을 탐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과 부정적 과정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부양경험 과정 모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어온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부양 패러다임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부양지원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떠한 부양지원 제공자들이 중재를 덜 필요로 하는지를 규명하는데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임상가들이나 실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김윤정(1999). 사회적 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능취약노인의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정, 최혜경(1993).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63-83.
 김진선(2000). 여성 가족부양자의 건강상태 및 가족

부양의 부정적·긍정적인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0(3), 632-646.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미혜, 오가실(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3), 467-486.
 송효석(1989).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옥경(2000). 의존성 노인의 부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5, 167-190.
 윤현숙, 차홍봉, 조양순(2000). 뇌졸중 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137-153.
 이가옥, 이미진(2000).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215-228.
 이경순(1996).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경험. 정신간호학회지, 5(2), 50-58.
 이숙현(1999). 노인과 간병.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31-261.
 이은희(1999).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 211-239.
 이형실(1992). 노부모 부양경험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2), 41-50.
 한경혜(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46-58.
 한경혜, 윤성은(2002). 한국 성인 남녀의 부양지원 제공 실태와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65-73.
 한경혜, 이정화, Ryff, C., Marks, N. F.(2002).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결과 보고서. 미간행.
 Albert, S. M. (1991). Cognition of caregiving tasks:

- Multidimensional scaling of the caregiver task domain. *The Gerontologist*, 31, 726-734.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 A.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Barer, B. M. & Johnson, C. L. (1990). A critique of caregiving literature. *The Gerontologist*, 30, 26-29.
- Brody, 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471-480.
- Farran, C. J. (1997).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rning positive aspects of caring for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Stress/adaptations and existentialism. *The Gerontologist*, 37, 250-256.
- George, L. K. & Gwyther, L. P.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 253-259.
- Hoyert, D. L. & Seltzer, M. M. (1992). Factors related to the well-being and life activities of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41, 74-81.
- Horowitz, A. (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In C. Eisdorfer, M. P. Lawton, & G. L. Maddox(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5(pp. 194-246). New York: Springer.
- Horowitz, A. (1992).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gender within family caregiving relationship. In J. W. Dwyer & R. T. Coward(Eds.),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pp. 132-150). Newbury Park, CA: Sage.
- Kling, K. C., Seltzer, M. M., & Ryff, C. D. (1997). Distinctive late-life challenges: Implications for coping and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 288-295.
- Kramer, B. J. (1997). Gain in the caregiving experience: Where are we? What next? *Gerontologist*, 37, 218-232.
- Krause N, Herzog R, & Baker E. (1992). Providing support to others and well 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47(5), P300-P311.
- Lawton, M. P., Moss, M., Kleban, M. H., Glicksman, A., & Rovine. M. (1991). A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 46, 181-189.
- Levesque, L., Cossette, S., & Laurin, L. (1995).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of caregivers of a demented relative. *Research on Aging*, 17, 332-360.
- Marks, N. F. (1994). Midlife caregiving: Do effects differ by gender? *NSFH Working Paper*, 64.
- Marks, N. F. (1996). Caregiving across the lifespan: National prevalence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5, 27-36.
- Marks, N. F. & Lambert, J. D. (1997). Family caregiving: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SFH Working Paper*, 78.
- Marks, N. F. & Lambert, J. D. (1999). Transitions to caregiving, gender, psychological well-being: Prospective evidence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Working Paper*, 82.
- Moen, P., Robinson, J., & Dempster-McClain, D. (1995). Caregiving and women's well-being: A life course approa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259-273.
-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997). *Family caregiving in the U.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Bethesda, MD: NAC and Washington, DC: AARP.
- Nolan, M., Grant, G., & Keady, J. (1996). *Understanding family car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Noonan, A. E., & Tennstedt, S. L. (1997). Meaning in caregiving and its contribution to caregiver

- well-being. *The Gerontologist*, 37, 785-794.
-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 583-594.
- Penning, M. J. (1998). In the middle: Parental caregiving in the context of other rol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3B, S188-S197.
- Reid, J. & Hardy, M. (1999). Multiple roles and well-being among midlife women: Testing role strain and role enhancement theor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4B, S329-S338.
- Riedel, S. E., Fredman, L., & Langenberg, P. (1998). Association among caregiving difficulties, burden, and rewards in caregivers to older post-rehabilitation patien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3B, P165-P17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charlach, A. E. (1994). Caregiving and employment: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les? *The Gerontologist*, 34, 378-385.
- Stephens, M. A. P., Franks, M. M., & Townsend, A. L. (1994). Stress and rewards in women's multiple roles: The case of women in the middle. *Psychology and Aging*, 9, 45-52.
- Walker, A. J., Martin, S. K., & Jones, L. L. (199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 S130-S139.